# 세상에 망대 같은 교회

주일 2 부핵심

행 11:19-26

안디옥 교회는 복음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난 절대 제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다. 당연히 복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교회였고 세상에는 소망을 전달하는 망대 같은 교회였다. 영적인 어려움이 세상을 뒤덮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보고 가야 할 중대한 그림이기도 하다. 복음을 누리는 개인과 교회는 반드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. 언약이 되면 답이 되고 각인이 일어난다

# 1. 전도하는 사람

- 1) 19: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
- 2) 20: 최초의 이방인 전도
- 3) 21: 당연히 주의 손이 함께
- 4) 22 : 본부 교회가 알게 되고 지원

#### 2. 준비된 제자들

- 1) 25: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
- 2) 26: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 인이라
- 3) 복음은 하나님의 근본, 제자는 하나님의 현장
- 4) 행 13: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
- 5) 마땅히 잡아야 할 교회의 방향과 내용

## 3.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

- 1) 안디옥 교회 시대적 사명을 가진 교회
- 2) 성경적 전도로 승부하는 교회
- 3) 237 위해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교회
- 4) 남미 5000 종족 운동

## 4. 결론

- 1) 본부와 강단을 따라 가고 근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오늘
- 2) 내용을 가진 개인이 필요하다. 결국은 내용이 좌우한다
- 3) 세상을 이끌어 갈 메시지가 제자를 이끈다.

3/24/24